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중2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방학을 하면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교과 세특을 적는 칸이 거의 비어 있네요. 1학년 때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이가 학교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나이스에는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_장유희(44·서울 송파구 오금동)

교과 세특은 학년이 바뀐 후에 볼 수 있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해당 학년에는 나이스(www.neis.go.kr)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창의적 체험 활동’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평가 하는 부분은 학년이 바뀐 후에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의 교과 세특을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다릅니다. 경기 조원중 허수진 교사는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중학교는 교과 세특이 의무 기록 사항이 아니다. 최소 30% 학생의 교과 세특을 기록하면 된다. 다만, 중은 자유학년제라 성적을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교과 세특을 서술형으로 써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세특은 학생 참여형 수업,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에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참여도, 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중1 때와 비교했을 때 교과 세특이 줄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보다 적극적인 학교생활로 세특에 기록할 만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MORE TIP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다음과 같이 안내돼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15조

-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습 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⑦ 중학교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출처 학생부 종합지원 포털(star.moe.go.kr)

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i22@naeil.com

수능 국어 문제 푸는 순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가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국어 시험을 망쳤어요. 출제된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풀지 않고 쉬운 부분부터 푼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정신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해야겠지만 순서를 바꿔 푼다니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요. 추천해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_ 전소희(기명·48·서울 강남구 대치동)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문학> <독서>의 순으로 푸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에게 맞는 풀이 순서를 찾아야 합니다.

시험 문제를 앞에서 뒤로 순서대로 푸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순서는 학생들마다 다릅니다. 본인들에게 편한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 확보를 위해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풀기도 하고, EBS 연계율로 인해 익숙하게 느껴지는 <문학>부터 풀어 마음을 편하게 하거나, 답이 비교적 명확한 <문법>부터 풀며 머리를 잘 돌아가게 하고 첫 시험에 대한 긴장감을 낮추는 등 제각각입니다. 2022학년 수능 국어 영역은 순서대로 독서 17문항+문학 17문항+선택 과목 11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입니다.

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는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에 비해 배점이 높고 일반적으로 난도도 높아 더 중요하다.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좀더 수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뒷부분의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그다음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되는 <문학>, 마지막으로 <독서>를 풀도록 권한다. 단,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을 경우다. 선택 과목, <문학> <독서>의 순서로 풀더라도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다. 또한 시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대부분이므로 뒤에 푸는 문제의 정답률이 낮다. 자신 없어하는 부분을 뒤로 배치하는 게 현실적이다.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문제 풀이 순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MORE TIP

본인에게 맞는 국어 문제 푸는 순서를 찾았다면 모의고사 때마다 같은 순서대로 풀면서 흔들림이 없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 쉬워 보이는 문제를 고르면서 순서가 흐트러지는 등 오히려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